



크로스·업

京畿道副知事 洪瑛基씨

지난 4월19일, 늦은 봄날의 기온이 자못 초여름의 열기 마저 풍기는 날씨다. 기자는 이제 수도권의 1일 생활권으로 되어 있는 수원에 다달았다. 유서깊은 수원 북문옆에 자리잡은 寄協 경기도지부 청사는 그 자태가 이제나 저제나 늘 정답다.

같은 직장의 동료의식 때문이리라——.

李燮국장, 裴貞九과장, 朴光雨과장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경기도청을 찾았다. 官僚風이란 전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洪瑛基 副知事님——.

검소하면서도 멋있는 그의 외모에서 서민적이면서 은근한 친근미를 더해 준다.

그러나 기자는 外柔內剛型인 洪부지사의 철학있는 말씀에서 예리한 통찰력을 직감할 수 있었다.

『— 우리 道는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보건행정을 개선하는데 어려운 문제점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의 공장들이 경기도 지역으로 많이 이전해서 시설 투자등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지만, 그러나 한가지 공해문제에는 별로 신경을 안쓰는것 같어요. 그리하여 폐수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큼니다.

근래에도 특별지시를 해서 139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야간에 폐수를 직접 채취, 검사하여 시설이 미비한 공장등은 엄중히 다스리라고 말한바 있습니다만 종말처리시설등을 개수해서 정말로 공해없고 살기 좋은 경기도로 만들 작정입니다.——』

洪부지사의 말씀속에는 道민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것을 옹기 시정하겠다는 강인한 결의가 엿보여 인간성의 한면을 보는듯한 느낌을 준다.

— 경기도만이 갖는 보사행정의 자랑거리라면 어떤것이 있습니까?

『우리 道의 특색이라면 이런것을 들 수 있겠지요. 우리 민족은 고대로 부터 음식낭비의 풍습이 있어요. 먹지도 않을 음식을 한상 가득히 차려 놓고 손님을 대접하는것 등 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道는 他道와는 차원이 좀 다르게 주문 식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즉 市나 邑별로 2개소씩 모범 주문 식단체를 하고 있으나 특히 유명한 관광지

사진 : 右로부터 洪부지사, 鄭실장, 李국장, 朴과장



인 소요산, 아산만, 신록사, 용문사등에서는 업소 전부가 주문 식단체로 되어 있어 소위 바가지요금도 지양되고 명승고적지의 품위도 향상시키고 있지요.

앞으로는 도내 전 업소에 주문 식단체를 확산 실시, 외식의 식사경향을 개선 시키겠습니다。」

힘주어 이야기하는 洪부지사는 앞으로 닥아올 아시안 게임, 올림픽등을 대비 해서라도 꼭 실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외국인이 온다고 해서 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꼭 식생활습관 패턴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정가표가 꼭 부착되어 음식값에 의구심을 갖지 않게 해야 한다고 부연하기도. — 앞으로 健協·寄協등의 지원은 어떤 방향에서 해 주실런지요?

『寄協은 그간 보건행정에 기여한바가 큼니다. 그러나 健協의 당면과제는 우선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즉 성인병위해의 인식이 긴급합니다.

그래서 1년에 2~3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미 지난 3월에 班회보에 건협 안내를 했고 11월에 다시한번 게재해서 도민들에 알릴 생각입니다.

사업만 늘릴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1~2년은 아예 알려주는 시기로 잡아 홍보를 우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 健協·寄協에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다면 한말씀 해 주십시오.

『협회를 방문해보면 한사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어요. 모두 다 내 직장이라는 애착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 존경하고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한가지 부탁은 국민보건 문제를 다룬다는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일하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로서는 건협사업에 최대한 협력할 생각이라면서 건강검진 차량 구입에 관한 지원도 다각도로 생각중이라한다.

소방차 1대 구입비가 약 3억원가량드는데 비하면 건강검진차량 1대 가격이 2천여만원으로 「예방하므로써 구하는 생명」이라면 2천여만원은 鳥足之血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금년도 보조금 신청시에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취미로는 바다 낚시, 민물낚시를 막론하고 一家見이 있는 釣士.

건강관리는 공무원 생활에서 젖은 강단으로 버틴다고 껄껄 웃는다.

120cm의 농어를 잡은적도 있다는 자랑도 한다.

海士卒, 내무부 자연보호담당관, 안양시장, 산림청 기획관리관등 요직을 두루 거쳐 82. 7월 현직(경기도 부지사)에 취임.

부인 安熙蓮女史와의 사이에 3女가 있다.